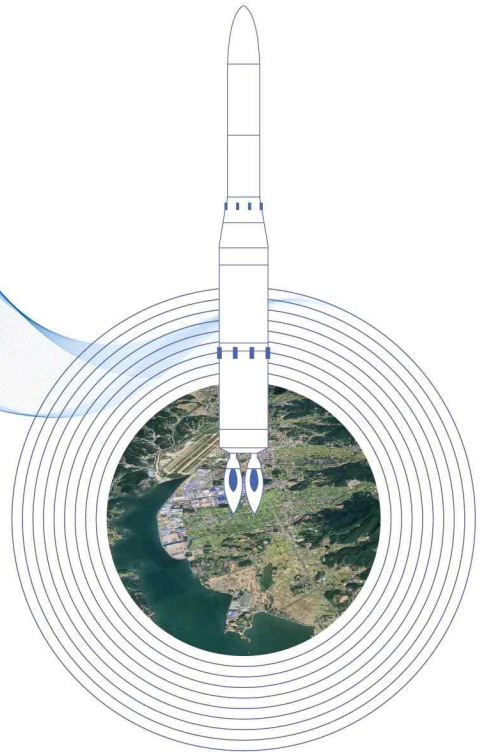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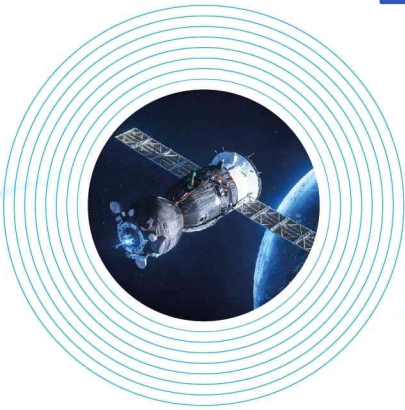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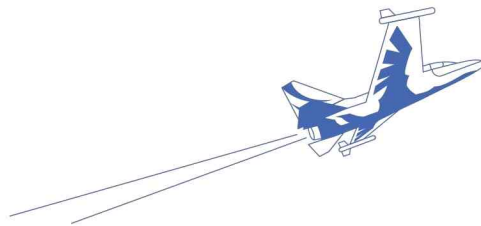


2023. 9월

우주항공산업 동향



우주항공과 미래도약
함께 합니다.



우주항공산업 동향

관 내 동향

우주항공청 조기 설치 염원 대규모 궤기 대회

- 지난 3일 삼천포대교 공원에서 5천여 경남도민이 모인 가운데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궤기대회가 열렸다.
-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사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 이날 행사는 박동식 사천시장을 비롯해 박완수 경남지사, 하영제 국회의원,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, 조규일 진주시장 등이 참여했다.
-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경남의 산·학·민간 등 38개 단체와 협회가 연대해 발족한 단체다.
- 궤기대회는 개회사와 내빈 격려사, 결의문 낭독,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.
-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여야가 법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추석 전까지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사천시, 항공 MRO 산업의 이해와 사천시 발전 방안 교육

- 사천시는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천상필 교수를 초빙해 공무원 140여 명을 대상으로 '항공 MRO 산업의 이해와 사천시 발전 방안'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.
-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항공 MRO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외 MRO 산업의 성공사례 등을 통해 미래 발전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.
- 천 교수는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과 대한항공(KAL)과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항공서비스(KAEMS)를 활용한 물량 확대, 경항공기, 헬기 등 사천 MRO 구축, 해외 MRO 업체의 성공사례 벤치마킹 등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.
- 사천시는 2010년 정부의 '항공 산업발전 기본계획 2010' 항공산업 글로벌 G7 도약 MRO 사업 추진에 따라 경남도, KAI와 함께 MRO 사업 MOU를 체결했다.
- 이후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가 KAI를 항공정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KAI가 항공 MRO 전문기업인 KAEMS를 설립해 추진 중이다.
- 사천시와 경상남도는 1,759억 원을 투입해 항공 MRO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경남 서부지역을 MRO 중심지로 성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.

사천시의회, '항공우주 속으로'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

-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'항공우주 속으로'가 '우주항공산업도시 기반 특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기본계획 수립'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했다.
- 이번 용역은 장기적인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구상하고 기본방향을 탐구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단체 소속인 김규현, 김민규, 박병준, 박정웅, 전재석, 최동환 의원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.
- 주요 내용은 △사천시 우주항공 산업 분석 현황 △우주항공청 설립 배경과 관광 분야 현황 예측 △우주항공 선진국의 관광산업 방향성 등이다.
- 대표의원인 전재석(국민의힘) 의원은 "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세계적인 우주항공도시로 자리매김할 사천시 위상에 걸맞게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"고 말했다.

KAI-에어버스, 헬기 300대 양산 통합발주 계약

-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과 에어버스헬리콥터(AH)가 소형무장헬기(LAH) 및 수리온(KUH) 300대 규모 생산 물량에 대한 선제적 통합발주 계약을 체결했다.
- 이는 방위사업청이 육군에 초도 LAH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KAI와 체결한 계약의 일환으로 내년 말부터 향후 10년간 제작 및 납품이 진행된다.
- 또한 양사는 수리온 공동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여 AH의 시스템 분야 전문성과 KAI의 국내 생산 산업화 역량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한편 KAI의 수리온은 올해 전력화 10주년을 맞았으며 올해를 수출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베트남, 폴란드 등과 협의하며 노력 중이다.

도 내 동 향

경남도, '경남형 미래항공산업' 육성 본격화

- 경남도가 미래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사업인 '미래항공기체(AAV, Advanced Air Vehicle) 시제기 개발사업'과 '미래항공교통(AAM, Advanced Air Mobility) 항로 발굴사업'의 착수보고회를 열었다.
- '미래항공기체 시제기 개발사업'은 엔젤릭스(비행체 설계 및 제작) 주관으로 경상국립대학교(체계종합), 마이크로엔지니어링(시험 및 평가), 브레인즈랩(통합 비행조종 시스템), 씨티엔에스(연료 및 추진 시스템)가 참여한다.
- 주요 내용은 △체계종합 △시제기 설계 및 제작 △통합조종시스템 개발 △추진계통설계 등을 통해 멀티콥터형 2인승 수륙양용 기체 개발 등이다.
- '미래항공모빌리티 항로발굴 및 실증사업'은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(디지털 트윈 소프트웨어 개발) 주관으로 에이엠솔루션즈(전파 측정 장비 제작), 이노스카이(항로 설계), 켄코아에비에이션(전파환경 측정 및 항로 실증), 한서대학교(버티포트 최적지 분석)가 참여한다.
- 주요 내용은 △관광형, 응급형 등 미래항공교통(AAM) 항로 5개 발굴 △버티포트 최적지 분석 8곳 △전파환경 측정 분석 △비행실증 등으로 경남만의 최적화 노선 마련이다.
- 도는 미래항공산업파트를 신설하고 AAV 실증센터 구축(233억원), AAV 시제기 개발(48억원), AAM 항로발굴 및 실증사업(6억원), 우주산업 및 미래항공모빌리티 국제 콘퍼런스 개최(3.5억원) 등을 통해 미래항공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.

경남도,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출범식

- 경남도가 도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문기구인 ‘경상남도 방위산업 발전협의회’를 발족했다.
- 도는 KAI, 한화에어로스페이스, 현대로템, 국방과학연구소, 국방기술품질원, 한국방위산업진흥회, 육군종합정비창 등 산·학·연·관·군 전문가 18명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.
- ‘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’에 의해 출범한 협의회는 △종합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△중소·벤처기업 육성 △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 △방위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경남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.
- 이날 회의에서는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,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유치 추진사항 내년 추진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향후 상생 협력하며 경남 방위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.

진주시, 초소형위성 JINJUSat-1 발사 위해 美 운송

- 국내 최초로 지자체가 개발한 초소형위성 JINJUSat-1(진주셋 원)이 발사를 위해 미국으로 옮겨졌다.
- 본 사업은 2019년 진주시, 한국산업기술시험원(KTL), 경상국립대가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시작했으며 2026년 발사를 목표로 진주셋 두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.
- 진주셋 원은 현지에서 최종 점검을 진행한 뒤 올 연말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사의 팰콘9 발사체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다.
- 진주셋 원은 발사 후 약 3개월 동안 위성에 장착된 카메라 3대로 지구 사진 촬영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.

국 내 동 향

경북도, 구미서 첫 '항공방위물류 박람회' 개최

- '2023 경북 항공방위물류 박람회'가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구미코에서 열렸다.
- 개막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, 김장호 구미시장, 기업체 대표 등 내빈과 관람객 1천여 명이 참석했다.
- 경북도와 구미시가 공동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한 본 박람회는 △기업전시 △항공(UAM)·방위·물류 세미나 △수출 및 투자상담회 △진로탐색 콘서트 등으로 구성되었다.
- 행사에는 한화시스템, LIG넥스원, 엠브레어, 남방항공, 한국공항공사 등 70여 개의 기업·기관이 참여했으며 도는 한화시스템·LIG넥스원, STX, 글로벌혁신센터(KIC)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- 한화시스템·LIG넥스원과는 해외 항공방위기업과 지역 기업 간 공동과제 발굴 및 산업협력 활성화를 통한 첨단 항공전자방위산업 육성, STX와는 STX에어로서비스 본사와 사업장의 단계적 이전을 통한 항공 MRO 산업 등 육성, KIC와는 항공·물류 기업의 중국 진출 활성화에 대한 협력이다.

원자력연, 우주방사선 시험장치 첫선

- 한국원자력연구원 양성자과학연구단이 우주 방사선환경까지 모사할 수 있는 ‘우주환경 모사장치’를 구축했다.
- 우주에는 강력한 우주방사선이 존재하며 우주·항공용 반도체 오작동 원인의 30%가 우주방사선이 반도체 소자와 충돌해서 발생한다.
- 따라서 인공위성 등에 사용되는 부품과 소재들은 방사선 시험을 통해 성능 검증을 해야 한다.
- 그동안 국내에는 인공위성용 부품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는 있었지만 우주방사선 환경까지 구현한 장치는 없었다.
- 이번에 구축된 장치는 우주방사선의 85%를 차지하는 양성자를 이용한 것으로 시운전을 거쳐 산업계에 개방될 예정이다.

대한항공, 친환경 연료로 항공기 띄워

- 대한항공이 지난 5일 GS칼텍스와 바이오 항공유(SAF)를 사용한 화물기 첫 운항에 나서며 상용화의 첫걸음을 뗐다.
- 대한항공은 GS칼텍스로부터 세계 최대 바이오연료 생산기업인 핀란드 네스테에서 생산한 바이오 항공유를 공급받아 LA행 화물기에 급유했으며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시험운항을 진행할 예정이다.
- 또한 HD현대오일뱅크와 바이오 항공유 개발·제조 중으로 충남 서산에 연산 13만t 규모의 차세대 바이오디젤 제조공장을 조성하고 올해 안에 시험 생산할 계획이다.
- 운항사와 정유업계는 해외의 바이오 항공유 의무 사용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차세대 연료 공급망 구축을 준비 중이며, 정부도 친환경 항공유 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연료 실증사업과 석유사업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.

해 외 동 향

에어버스·에어프랑스 KLM, A350 부품 합작사 설립

- 에어버스가 에어프랑스와 네덜란드 항공의 통합 회사인 에어프랑스 KLM과 A350 부품 지원을 위한 합작사(JV)를 설립한다.
- 합작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당국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며 양사가 50대 50 지분 투자로 설립하고 항공기 부품 자산을 합작사로 이전한다.
- 양사는 에어버스의 전문 지식과 에어프랑스 KLM의 엔지니어링 및 유지보수 역량을 결합하여 전 세계 A350 항공기의 장기 유지보수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.
- 또한 A350의 수요 증가에 따른 시장의 요구에 더욱 잘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.

록히드마틴·BAE 시스템즈 아시아 거점 일본으로 이전

- 미국의 록히드마틴과 영국 BAE 시스템즈 등 글로벌 방위업체들이 아시아 본부를 일본으로 옮긴다.
- 세계 1위 방산기업인 록히드마틴은 아시아 총괄을 싱가포르에서 일본으로 옮기고 한국과 대만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.
- 영국 최대 방산기업인 BAE 시스템즈는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거점을 옮기고 조달처를 넓히는 데 집중한다.
- 전문가들은 이 배경에는 중국의 대만 침공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것과 일본의 방위비 증가가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했다.
- 이로 인해 BAE 시스템즈가 미쓰비시중공업 등과 제휴를 늘리며 일본 내 방산기업도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.

인도 세계 최초 달 남극 탐사선 착륙

- 인도의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지난 23일 발사 3주 만에 달 남극에 착륙했다.
- 인도는 미국, 소련,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했지만 달 남극 착륙은 세계 최초다.
- 달 남극은 지형이 고르지 않아 착륙이 까다롭지만 물이 얼음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커 얼음을 녹여 활용할 수 있어 인류의 심우주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주목받는 곳이다.
- 찬드라얀 3호는 달 남극 표면 온도를 측정했는데 8cm 깊이에서는 영하 10도, 표면에서는 50도로 측정되어 지금까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은 온도임이 밝혀졌다.
- 또한 산소와 알루미늄, 칼슘, 철, 크롬, 티타늄, 망간, 실리콘, 황이 발견됐다.
- 인도는 앞으로 달 남극의 물, 얼음, 헬륨3 등의 자원을 탐사할 예정이며 태양 관측 인공위성을 발사해 궤도 안착을 기다리고 있다.

작성일	2023. 9. 15.(금)	보고일	2023. 9. 18.(월)
부서명	항공경제국 우주항공과	담당자	김난주(055-831-3473)